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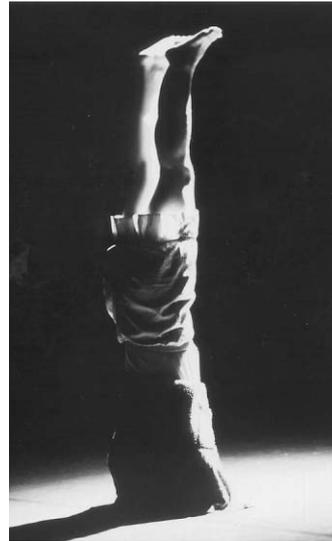
이경은 · 춤 · 2

〈역겨운 예〉



폭발적 에너지와 순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춤 세계와,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무대매너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경은의 2005년 신작 〈역겨운 예〉. 이는 테러에 의해 희생된 김선일의 사건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경거리로 전락한 인간 목숨에 대한 허탈감과 휴머니즘을, 그리고 죽음을 통한 존재와 사랑, 몸, 고독한 심경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 ▶공연일시 : 12월 20일(화)~22일(목) 오후 8시
- ▶공연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관람료 : 전석 20,000원
- ▶공연문의 : (02) 2263-4680
- ▶STAFF : 안무 · 출연 이경은 / 음악 류한길 / 조명 신호



아르코예술극장 기획공연 “우리 뮤지컬의 힘!” Part 1.

틱마루무용단 〈겨울이야기〉

〈겨울이야기〉는 신체언어를 표현수단으로 하는 무용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셰익스피어가 인생에 대해 표현해온 초월 철학관과 극의 제의적 기능을 탁월하게 해석·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수를 기용하여 극의 중간 중간에 노래를 삽입, 춤뿐만 아니라 노래와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적 공연양식인 ‘댄스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 문화와 화려한 공연양식에 익숙해진 대중관객들이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시킨 현대무용의 놀라운 변신을 경험하게 합니다.

- ▶공연일시 : 12월 23일(금)~25일(일) 금 오후 8시 / 토 · 일 오후 3시, 6시
- ▶공연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관람료 : R석 50,000원 / S석 20,000원
- ▶공연문의 : (02) 2263-4680 / (02) 3408-3277
- ▶STAFF :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안무 · 예술감독 최청자 / 연출 이종훈 / 작곡 김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05 기획초대전 III,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 아르코미술관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05 기획초대전으로 〈신지철 개인전: 해브어나이쓰데이〉, 〈임동식 개인전〉을 개최한다. 기획초대전은 한국미술계의 허리세대인 중견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미술의 각 장르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시작된 아르코미술관의 연례기획전이다. 올해 2005 기획초대전은 전통적인 매체 안에서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고유의 화법을 통해 시대와 사회를 읽어내는 방식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작가 신지철과 임동식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현장 작업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작가들로서 서울에서 오랜기간 동안 접할 수 없었던 그의 작업 변화과정과 새로운 조형적 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로 다시 전환시켜 현장의 느낌과 생각을 수공예적인 회화를 통해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동식의 야투에서의 현장작업, 그리고 1993년부터 농민들과 같이 작업한 ‘예술과 마을’ 설치작업, 최근에 작업 중인 야외에서의 기록들인 회화작업이 보여질 예정이다.

신지철 개인전: 해브어나이쓰데이(10.28~11.24)



제2전시실에서 선보이는 신지철의 경우, 1999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후

6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는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시라 하겠다. 미국으로 가기 전 신지철은 90년대 서울 대규모의 도시개발로 인해 철거민 운동이 벌어졌던 지역들을 수년간 답사하며 사진을 통해 표현하였다.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여주는 〈해브어나이쓰데이〉는 로스엔젤레스를 기본 배경으로 미국에서의 도시 공간 속의 이미지들을 하루의 일상적 사건으로 가정하고 이를 동시상황으로 만들어낸다. 그의 눈을 통해 포착된 도시 공간 안의 생활 이미지들은 삶 속에서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는 하루의 경험을 구조화시킨 것이다. 그의 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도시공간의 단편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리라 기대한다.

-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안현주 Tel.(02)7604-724, 자료참고 www.webhard.co.kr - I,D/P,W : mac001, 폴더 ‘2005기획초대전 보도자료’)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임동식 개인전(10.28~11.24)



제1전시실에서 선보이는 임동식은 우리에게 자연 예술가로 잘 알려진 작가로서, 자연미술을 중심으로 ‘야투’라는 그룹 활동을 이끌면서 실내중심의 미술 행위를 야외에서의 현장작업으로 전환, 재해석하는 데에 고민한 작가이다. 임동식이 30여 년 간 몰두한 ‘야투’에서 진행한 현장작업은 사진이나 동영상 매체에 의한 기록에 의존하였다. 최근에 기록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녔던 그의 현장작업은 그림으